

12/22/19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5 장 33-39 절

(막 15:33)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절관주** 마 27:45, 눅 23:44

(막 15:34)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절관주** 시 22:1

(막 15:35)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막 15: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싯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절관주** 마 27:48, 요 19:29, 시 69:21

(막 15: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막 15:38)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절관주** 엡 2:14, 히 10:20

(막 15:39)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절관주** 신 32:31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까?

선물? 트리? 캐롤? 카드? 흰 눈? 산타크로스? 루돌프?

미국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으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크로스, 선물, 캐롤, 카드 등을 적었고 정작
기대했던 예수님의 생일을 적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주인공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양 잔치를 벌리며 선물들을 주고 받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상업주의, 감상주의,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잃고 X-Mas 가 된 것입니다.

물론 X는 그리스도 (Christ)의 약자로 X-Mas는 크리스마스를 뜻하지만 제가 말하는 X-Mas란 수학의 미지수 X를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는 Christ + Mass의 합성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 의미를 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려고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 사명을 띠고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 복음을 차례대로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죽기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못 박히신지 3시간이 경과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막 15:33)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유대 시간으로 제 삼시(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제 구시(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지 3 시간이 지났을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깔린 것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까지 무려 3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온 세상이 빛을 잃은 것입니다.

제 구시(오후 3 시)가 되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막 15:34)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총 일곱 번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일곱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부터 죽으시기 직전까지 하신 말씀들을 차례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네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본문에 기록된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중심으로 앞
뒤 세 말씀씩 구조적인 대칭을 이룹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세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마지막 세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는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같이 달려 있던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며 세
번째의 "보라 네 어머니라"는 생모와 제자 요한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세 말씀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에 반해 마지막 세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는 당신 육체와 관련된 것이고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는 당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당신 영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 말씀들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였던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가상칠언 구조상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말씀이지만 이해하기 아주 난해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렸다'와 '어찌하여' 두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버렸다'로 번역되는 아람어 '사박크'는 히브리어로 '아자브'입니다.

'아자브'는 '내어버리다'라는 뜻인데 단순한 내어버림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시다.

예수님은 이때 하나님을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공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시다.

예수님은 이때를 제외하곤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시다.

그러나 이순간 만큼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개인적인 부자 관계를 떠나 공적이고 법적인 관계로 서로를 상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어찌하여'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라고 하신 것은 사실을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며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어찌하여'라고 물으셨느냐고요?

히브리어에는 두 종류의 의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때는 '왜'라고 번역되는 '마두아'라는 의문사를 사용합니다.

'마두아'는 '안다'라는 뜻의 '야다아'에서 파생된 것으로 사실을 알고 싶어서 물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답을 원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동의와 인정을 받기 원하거나 강조하기 원할 때도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이때는 '라마'라는 의문사를 사용하는데 '라마'는 '라'와 '마'의 결합으로 '라'는 'for'로 번역되는 전치사이고 '마'는 'what'으로 번역되는 의문사로 'for what?'이란 뜻입니다.

목적과 의도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친 '어찌하여' 속에는 인간 구원과 그 결과로 주어질 복에 대한 선언과 찬양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은 주변의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은 잠시 멈췄던 조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막 15:35)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막 15: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라고 하신 것을 엘리야로 잘못 듣고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해면에 머금게 한 신 포도주를 갈대에 달아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지라도 이같은 행동은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어서 한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사실은 뒤에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고 조롱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막 15: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지르신 큰 소리가 무엇인지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일곱 마디 말씀 중 마지막 말씀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임종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오랜 숙원인 인류 속죄 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신비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처져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막 15:38)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인간이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구약적 제사는 짐승을 속죄 제물로 바치고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습니다.

일년 동안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물로 가져오는 짐승들을 잡아 그 피를 성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 속죄일인 음키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년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속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을 속죄 제물로 바치고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는 구약적인 제사는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 등 짐승의 피로 속죄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십자가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의 그림자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적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의 피를 짓밟는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킴으로
구약적 제사를 이땅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적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종말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또 다시 구약적 제사를 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적그리스도를 보내어 혹독한 재앙을 겪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뉴스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심지어 제물로 드릴 붉은 송아지까지 예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는 일에 책임자로 파견되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고 고백합니다.

(막 15:39)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는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범상치 아니한 인품과 행동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 등을 지켜보며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 크리이맥스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구약적인 제사 제도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천지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 모두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당신 소유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 대신 죽이려고 이 땅에 내려 보내신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와같이 의미심장한 크리스마스를 생각없이 선물 타령이나 하면서 보내지 말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신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크리스마스를 보내십시오.